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 1 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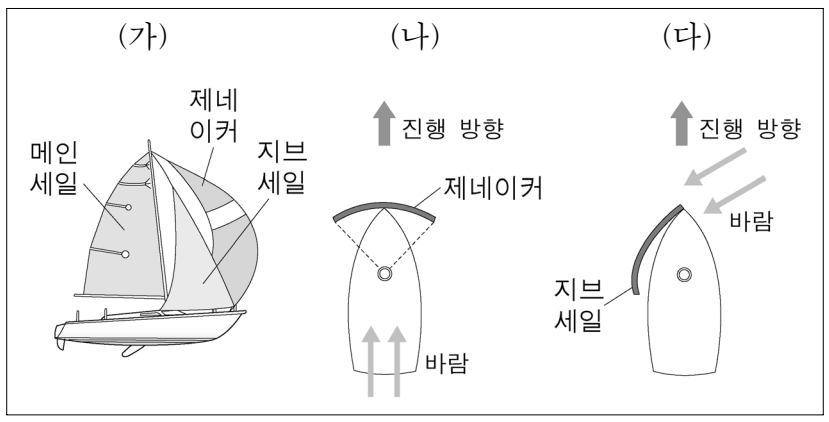
언어 영역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발표자가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1점]

① '오미자차'의 효능
② '오미자차'를 만드는 방법
③ '오미자차'를 마실 때의 유의점
④ '생맥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
⑤ '생맥산' 음료를 만드는 방법

2. (물음) 강의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항해 중에는 바람의 방향에 상관없이 '메인세일'을 펼쳐 놓는군.
② 순풍이 불면 '제네이커'를, 역풍이 불면 '지브세일'을 이용하는군.
③ 부푼 '지브세일'의 앞쪽은 바람이 지나는 속도가 느리고 뒤쪽은 빠르군.
④ '지브세일'의 볼록한 앞쪽은 기압이 낮아지고 뒤쪽은 높아지는군.
⑤ 역풍에도 전진하는 요트의 비밀은 비행기가 떠오르는 원리와 같군.

3. (물음) 학생이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발표를 준비할 때,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① 들을 사람의 특성을 분석한다.
②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다.
③ 발표 내용의 순서를 짜 본다.
④ 발표할 내용을 숙지한다.
⑤ 발표 연습을 해 본다.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김 교수가 소개한 두 지역에서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할 정책으로 알맞은 것은?

	목련동	장미동
①	다문화 센터 운영	다문화 축제 지원 사업
②	다문화 센터 운영	주거 환경 개선 사업
③	외국인 취업 알선 센터 운영	다문화 축제 지원 사업
④	다문화 관광 특구 지정	주거 환경 개선 사업
⑤	다문화 관광 특구 지정	외국인 취업 알선 센터 운영

5. (물음) 인터뷰에 적용된 진행자의 역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청취자의 입장에서 궁금해 할 만한 점을 질문한다.
ㄴ.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충 설명할 기회를 준다.
ㄷ. 화제를 의도적으로 전환하려는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한다.
ㄹ.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일상적인 화제로 인터뷰를 시작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다음은 십자말풀이에서 떠올린 내용에 착안하여 '책 읽기'에 대해 편지를 쓴 것이다. ㉠~㉤ 중, 떠올린 내용으로부터 연상한 결과가 아닌 것은?

[십자말풀이]

[1]감	칠	맛		[3]형
꼭				광
[2]지	[2]게	미		물
	시		[3]소	질

가로 열쇠
1....
2....
3....

세로 열쇠
1....
2....
3....

[떠올린 내용]

십자말풀이를 할 때는,
- ○ 쉬운 단어부터 풀어 나갈 수 있다.
- ○ 풀어낸 단어를 실마리로 삼아, 연결된 단어를 풀 수 있다.
- ○ 잘 모르는 것은 사전을 찾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풀기도 한다.
- ○ 글자 수가 같은 여러 단어를 넣어 본다.
- ○ 십자말풀이를 다 끝내면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

착안점
십자말풀이≒도서 목록
한 단어≒책 한 권

○○에게

이번 여름 방학에 과제로 읽어야 할 도서 목록을 받고 네가 걱정스러워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어. 어떤 말을 해 주면 도움이 될까 생각하다 네가 좋아하는 십자말풀이를 떠올렸단다.

십자말풀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떠올려 보렴. 그리고 책을 읽는 것도 그와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어떤 책부터 읽어야 할지 막막하다면 먼저 ㉠이해하기 쉬운 책부터 읽기 시작하렴. 그렇게 ㉡한 권의 책을 읽어 내면 관련이 있는 다른 책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거야. ㉢책을 읽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찾아 도움을 얻거나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해 보는 방법도 있겠지. 나도 도와줄게. 분량이 많은 책을 읽어야 할 경우도 있을 거야. 그럴 때는 ㉣하루에 읽을 분량을 일정하게 나누어 규칙적으로 읽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이런 식으로 네가 ㉤방학 동안 읽어야 할 책을 모두 읽게 된다면 분명히 성취감을 맛볼 수 있을 거야.

① ㉠ ② ㉡ ③ ㉢
④ ㉣ ⑤ ㉤

7. 다음은 '습지 보전'을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메모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상세화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본론>에 들어갈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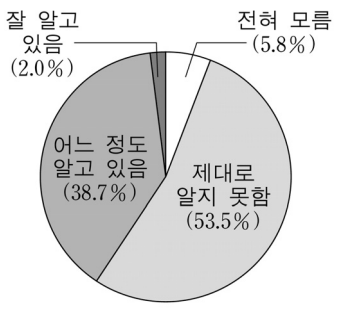
1. 습지 보전의 장애 요인
   가. 습지 보전에 대한 인식 부족
   나. 습지 보전 정책 미비
2. 습지 보전의 장애 요인 극복 방안
   가. 습지에 대한 인식 개선
   나. 습지 보전 정책의 보완
   다. 습지 보전을 둘러싼 갈등의 조정 및 해소 노력

<보 기>

자료 A : 습지 보전에 대한 지역 주민 인터뷰

"해마다 습지를 찾는 철새들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심해요. 습지 때문에 인근 지역에 비해 많이 낙후되어 있기도 하고요. 물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야 습지 보전에 찬성하겠지만, 저는 찬성할 수가 없네요."

자료 B : 습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 ○○○연구원(2008) -

자료 C : 습지 보전 사례

○○시에서는 습지 보전에 관한 지역민의 엇갈린 여론을 오랜 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훼손되고 있던 습지를 생태 보전 지역으로 특화하였다. 이로 인해 지역의 이미지가 개선되었고, 습지 생태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어 주민들의 소득 또한 늘게 되었다.

① '1'의 하위 항목으로 '습지 보전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을 추가하고, A를 활용하여 지역 내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이 습지 보전에 장애가 됨을 지적한다.
② '1-가'에 A와 B를 활용하여, 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습지 보전의 가치보다 현실적 이익을 더 중시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한다.
③ '2-가'를 '교육과 홍보로 습지 보전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구체화하고, B를 활용하여 습지 보전이 장기적으로 지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④ '2-나'에 C를 활용하여,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습지 보전 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제시한다.
⑤ '2-다'에 A와 C를 활용하여, 습지 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8. '중고 물품 교환 활성화'를 주제로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쓰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의 목적	○ 정보 제공 및 설득을 통한 동참 유도
예상 독자	○ 검색을 통해 방문하는 사람, 주변 사람
자료 수집	○ 중고 물품 재활용 실태와 개선에 관한 설문 및 통계 자료 ○ 중고 물품 교환 장면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 자료
내용 선정	○ 중고 물품 교환을 위한 여건 미비 및 의식 부족 ○ 중고 물품 교환 장소와 이용 방법
조직	○ 문제 제기, 원인 분석, 활성화 방안
매체 활용	○ 글의 내용에 어울리게 사진, 동영상 배치 ○ 설문 결과, 통계 자료의 다운로드 기능 제공

① [자료 수집] 네티즌이 활용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고 물품 교환 사이트 목록'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어.
② [내용 선정] 문제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중고 물품 재활용 실태와 문제점'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어.
③ [내용 선정]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중고 물품 교환을 위한 일일 시장 개설 제안'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어.
④ [조직]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동참 제안'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어.
⑤ [매체 활용] 주제를 고려하여, '취미 활동과 관련된 홈페이지 소개 및 주소 연결'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어.

9. <보기>의 조건에 따라 졸업 앨범에 '친구들에게 남길 말'을 쓴 것으로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 비유법과 생략법을 활용하기
○ 친구들과의 추억을 내용으로 담기

① 너희들과 함께 먹던 순대, 떡볶이가 맛있었어.
언제나 웃으며 맞아 주던 매점 아줌마도 그리울 거야.
친구들아, 기억하렴, 보름달 같은 내 얼굴을.
② 나야, 농구대. 친구들아, 사랑해.
우리들의 앞날이 정말 기대되는구나.
어디서 무엇이 되든 꼭 다시 만나자.
③ 친구들아, 잘 지내라.
앞으로 멋진 날들을 만들었으면.
너희들의 친구, 이 고구마가 너희들의 행운을 빌게.
④ 잊지 말자, 우리들의 우정을.
우리가 함께 했던 나날들을.
언젠가 이곳에서 우리 다시 만나길.
⑤ 나야 나, 마른 장작. 잊지 않겠지?
너희들과 함께 뛰놀던 운동장이 생각날 거야.
졸업이 흩어지는 구름처럼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길.

10. 다음은 해외 탐방 참가자 공모를 보고 작성한 신청서의 일부이다. 고쳐 쓰기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신청 동기와 사전 준비 정도

올해의 탐방 참가자 공모를 보며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 저를 선발해 주신다면 탐방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해외 탐방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탐방 지역으로 발표된 페루는 문화인류학에 관심 있는 제가 평소 가 보고 싶었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 잉카 문명에 대한 제 관심은 세계사 수업을 통해 싹텄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저는 여러 가지 문헌들과 사진 자료들을 살펴보고 ㉢ 잉카 문명의 매력에 매료되었습니다. 또한 탐방 예정지인 페루의 옛 도시 쿠스코와 마추픽추를 포함한 잉카 문명 유적지들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문화인류학적 가치가 큰 유적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직접 방문하여 당시 사람들이 남긴 유산을 살펴보고 싶다는 ㉣ 소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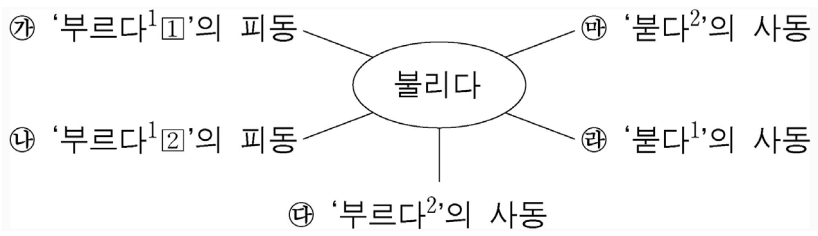
저는 탐방에 대한 사전 준비도 열심히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이미 잉카 문명의 역사와 지리에 대해 많은 자료와 문헌들을 ㉤ 조사했더니, 첨부한 계획서와 같이 이번 탐방을 통해 구체적으로 심화 학습할 주제와 탐구 계획도 정해 놓았습니다.

① ㉠은 글의 소제목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② ㉡은 첫째 문단보다 둘째 문단에 어울리므로 둘째 문단의 처음으로 옮긴다.
③ ㉢은 의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잉카 문명에 매료되었습니다'로 수정한다.
④ ㉣은 주어와의 호응을 고려하여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로 고친다.
⑤ ㉤은 뒤에 이어진 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조사했으므로'로 대체한다.

11.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한 ㉮~㉰의 예문으로 알맞은 것은?

<보 기>

부르다[1] 동 ①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오라고 하다.
②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이다.
부르다[2] 동 먹은 것이 많아 속이 꽉 찬 느낌이 들다.
붇다[1] 동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붇다[2] 동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



① ㉮: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재라고 불렸다.
② ㉯: 반장이 가장 먼저 불려 갔다.
③ ㉰: 주먹밥 하나로 아이들의 주린 배를 불릴 수는 없었다.
④ ㉱: 그는 요즘 재산을 불리는 재미에 빠져 있다.
⑤ ㉲: 메주를 쑤려면 콩을 물에 불려야 한다.

12. <보기>의 [A]에 들어갈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화자는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정보의 출처를 **'직접 경험', '추측', '전해 들음'**으로 구분하여 문장에 담아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왔구나."에서는 비가 많이 왔다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지금 직접 봄'으로써 알게 되었다는 의미도 확인되는데, 그러한 의미는 어미 '-구나'를 통해 드러난다. 또한 "비가 많이 오더라."에서는 비가 많이 왔다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그 당시에 직접 봄'으로써 알게 되었다는 의미도 확인되는데, 그러한 의미는 어미 '-더-'를 통해 드러난다.

다음 대화의 밑줄 친 부분도 정보의 출처를 드러내는 기능을 가진 어미들이다.

[A]

① 딸 : 오늘 날씨 어떻대요?
아버지 : 눈이 아주 많이 온대.
② 여학생 : 같이 점심 먹으러 가자.
남학생 : 나는 조금 있다가 먹을래.
③ 학생 1 : 선생님께서 출석을 점검하라셔.
학생 2 : 어쩌지? 철수가 아직도 안 왔네.
④ 김 대리 : 김 과장님 공항에 도착하셨을까?
이 대리 : 한 시간쯤 지났으니까 도착하셨을걸.
⑤ 아들 :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그나마 시원하네요.
어머니 : 집에 있어서 몰랐지만, 어제는 무척 더웠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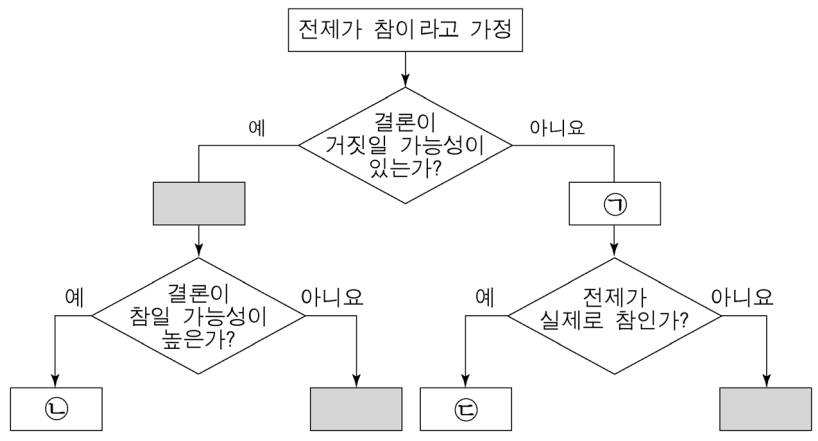
[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추론은 이미 제시된 명제인 전제를 토대로, 다른 새로운 명제인 결론을 도출하는 사고 과정이다. 논리학에서는 어떤 추론의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으면 그 추론은 **'타당하다'**고 말한다. "서울은 강원도에 있다. 따라서 당신이 서울에 가면 강원도에 간 것이다."[**추론 1**]라는 추론은, 전제가 참이라고 할 때 결론이 거짓이 되는 경우는 전혀 생각할 수 없으므로 타당하다. 반면에 "비가 오면 길이 젖는다. 길이 젖어 있다. 따라서 비가 왔다."[**추론 2**]라는 추론은 전제들이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지는 않으므로 타당하지 않은 추론이다.

'추론 1'의 전제는 실제에서는 물론 거짓이다. 그러나 혹시 행정 구역이 개편되어 서울이 강원도에 속하게 되었다고 가정하면, '추론 1'의 결론은 참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추론 2'는 결론이 실제로 참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이유로 길이 젖는 경우를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론 2'와 같은 추론은 비록 타당하지 않지만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꽤 높다. 그런 추론은 **'개연성이 높다'**고 말한다.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낮은 추론은 개연성이 낮을 것이다. 한편 추론이 타당하면서 전제가 모두 실제로 참이기까지 하면 그 추론은 **'건전하다'**고 정의한다.

그런데 '추론 1'은 건전하지 못하므로 얼핏 보기에 좋은 추론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도 논리학이 타당한 추론에 관심을 갖는 까닭은 실제 추론에서 전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직 참임이 밝혀지지 않은 명제에서 출발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추론은 과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논리학은 전제가 참이라는 가정 하에서 결론이 반드시 따라 나오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13. 위 글에 따라 추론을 구분하는 과정을 도식화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	㉢
①	타당한 추론	개연성이 높은 추론	건전한 추론
②	건전한 추론	개연성이 높은 추론	타당한 추론
③	타당한 추론	건전한 추론	개연성이 높은 추론
④	건전한 추론	타당한 추론	개연성이 높은 추론
⑤	개연성이 높은 추론	타당한 추론	건전한 추론

14.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남자 : 이 책에 우유를 많이 마시면 키가 큰다고 쓰여 있어.
여자 :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나도 우유를 많이 마셔.
남자 : 맞아. 농구 선수들은 다들 키가 엄청나게 크잖아. 틀림없이 우유를 많이 마셨을 거야.
여자 : 너의 추론은 타당하지 않아. 우유를 많이 마셔서 키가 큰 사람보다 우유를 안 마시고도 키 큰 사람이 훨씬 더 많아.

① 남자의 추론은 '추론 1'과 달리 전제가 실제로 참이므로 건전하다.
② 여자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남자의 추론은 '추론 2'와 달리 개연성이 낮다.
③ 여자는 남자의 추론에서 결론이 실제로 참일 수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④ 남자의 추론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는 우유를 안 마시고도 키 큰 사람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여자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남자의 추론은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추론 2'와 같다.

[15~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든 사막은 뜨겁고 세찬 모래 폭풍이 불어대는 ⓐ불모지일까? 사막 중에는 열대 사막도 있지만, 고지대나 대륙의 내부에 있는 사막과 같이 여름은 덥지만 겨울은 추운 온대 사막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막은 연 강수량이 250 mm 이하인 지역을 말하는데, 대부분 저위도와 중위도에 분포한다.

저위도의 사막은 북회귀선이나 남회귀선이 지나는 곳에 위치하는데, 이 지역은 지구의 ⓑ대기 대순환에 의해 반영구적인 고기압대가 형성되어 덥고 건조한 기후를 만들어낸다. 북회귀선에 위치한 사하라 사막, 아라비아 사막과 같은 열대 사막은 이러한 요인으로 형성되었다.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 미국 서부의 그레이트솔트레이크 사막과 중국 서부의 타클라마칸 사막의 형성 과정은 이와 다르다. 그레이트솔트레이크 사막은 시에라네바다 산맥이 해양에서 유입되는 ⓒ습윤한 공기의 수분 이동을 차단하여 형성되었다. 이는 수분을 함유한 공기가 높은 산맥을 넘어 반대쪽에 도달할 때 수분을 잃게 되어 건조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타클라마칸 사막은 히말라야 산맥에 의해 해양과 차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륙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는 조건 때문에 형성되었다. 대륙 내부로의 이동 과정에서 생기는 공기 중의 수분 손실도 사막 형성의 한 원인인 것이다. 이와 같이 사막은 대기 대순환, 지형적 특성, 지리적 위치 등의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

[A]
흥미로운 것은 타클라마칸 사막과 인접한 티베트 고원의 건조 지역에서 열대 습윤 환경에서 ⓓ서식하던 신제3기*의 생물 화석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과학자들은 이 지역이 한때는 저지대의 습윤한 지역이었으며, 지각 변동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기존의 지각 변동 이론에 따르면, 히말라야 산맥은 북쪽으로 이동하는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융기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티베트 고원에서 발견된 생물 화석은 이 이론에 잘 들어맞는 듯 보였다. 과학자들은 화석의 탄소 동위원소 분석뿐만 아니라 퇴적 지층에 대한 고지자기(古地磁氣)* 측정 결과를 통해, 이 지역이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과 함께 융기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따라서 티베트 고원에 인접한 타클라마칸 사막의 형성에는 근원적으로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이라는 지각 변동이 관련되어 있다.

호주 대륙의 사막들도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약 5천만 년 전 남극 대륙에서 분리된 호주 대륙은 지각 변동에 의해 북쪽으로 이동하여 남회귀선 부근의 저위도에 위치하게 되었는데, ㉡그 후 사막의 형성이 시작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신제3기 : 신생대 제3기 후반.
* 고지자기 : 과거 지구 자기장.

15.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

① 지각 변동은 일부 사막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② 타클라마칸 사막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온대 사막이다.
③ 시에라네바다 산맥은 그레이트솔트레이크 사막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④ 지구상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사막은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다.
⑤ 타클라마칸 사막의 형성에는 지형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리적 위치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16. [A]에서 사용된 ㉠의 검증 방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추가적인 증거를 통해 보강한다.
ㄴ. 적용 가능한 새로운 현상을 찾아본다.
ㄷ. 경쟁 가설보다 설명력이 있는지 비교한다.
ㄹ. 기존 이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17. 위 글로 미루어 볼 때, ㉡의 과정과 가장 관련이 깊은 요인은?

① 대기 대순환 ② 대륙의 크기 ③ 산맥의 높이
④ 해수의 온도 ⑤ 해양과의 거리

18. ⓐ~ⓔ의 뜻풀이가 바르지 않은 것은?

① ⓐ :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메마른 땅.
② ⓑ : 천체의 표면을 둘러싼 기체.
③ ⓒ : 습기가 많은 느낌이 있음.
④ ⓓ : 길러서 번식하게 함.
⑤ ⓔ : 솟아올라 높아짐.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지지미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괴가 다시 도졌나, 아니 아니
㉢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 풀이 죽는다.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 김춘수, 「강우(降雨)」 –

(나) 어두운 방안엔
빠알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생,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흐르는 까닭일까.

– 김종길, 「성탄제(聖誕祭)」 –

(다) 아직 서해엔 가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그곳 바다인들 여느 바다와 다를까요
검은 개펄에 작은 게들이 구멍 속을 들락거리고
언제나 바다는 멀리서 진펄에 몸을 뒤척이겠지요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
가보지 않은 곳을 남겨두어야 할까봅니다
내 다 가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내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늘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습니다

– 이성복, 「서해」 –

19.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①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
② 사물에 인격을 부여해 시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③ 도치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④ 감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⑤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2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가)에서는 독백적 어조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나)에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있다.
③ (가)와 달리 (나)에는 과거 장면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있다.
④ (나)와 달리 (가)에는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⑤ (가)와 (나)에는 모두 시상을 집약하는 소재가 나타나 있다.

21.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화자의 마음이 '이 사람'과 함께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평온함을 나타낸다.
② ㉡은 화자와 '이 사람' 사이의 소통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가 '이 사람'과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③ ㉢에서 화자는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이 사람'과 관련된 상황이 그 이전과는 다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④ ㉣에는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드러나 있다.
⑤ ㉤에는 '이 사람'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다짐이 나타난다.

22.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서해」에서 화자는 바다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당신'에 대한 역설적 태도를 드러낸다.

① 제1연에서 화자가 '서해'에 가 보지 않은 것은 '당신' 때문이야. 화자는 '당신' 때문에 '서해'를 특별한 공간으로 여기는 것이지.
② 제2연에서 '그곳 바다'는 화자가 아직 알지 못하는 바다이고, '여느 바다'는 화자가 알고 있는 바다야. 그런데도 화자는 두 바다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
③ 제2연의 제2~3행에서 화자는 '여느 바다'의 심상을 통해 '그곳 바다'를 추측하고 있어. 그런데 '멀리서'로 보아, 화자와 '당신' 사이에는 어떤 거리감이 있음을 알 수 있어.
④ 제3연에서 '계실 자리'와 '가보지 않은 곳'은 바다를 가리켜. '남겨두어야 할까봅니다'에는 지금은 '당신'에게 갈 수 없지만 나중에라도 가야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어.
⑤ 제4연의 '한쪽 바다'는 화자가 '당신'이 계실 것으로 추측하는 곳이야. 그곳은 항상 화자의 마음속에 존재해.

[23~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회화적 재현이 성립하려면, 즉 하나의 그림이 어떤 대상의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림과 대상이 닮아야 할까? 입체주의의 도래를 알리는 <아비뇽의 아가씨들>을 그리기 한 해 전, 피카소는 시인인 스타인을 그린 적이 있었는데, 완성된 그림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스타인의 초상화**가 그녀를 닮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피카소는 "앞으로 닮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에피소드는 미술사의 차원과 철학적 차원에서 회화적 재현에 대해 생각해 볼 계기를 제공한다.

우선 어떻게 닮지 않은 그림이 대상의 재현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시 피카소와 브라크가 중심이 되었던 입체주의의 예술적 실험과 그것을 가능케 한 미술사의 흐름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원근법을 사용하여 **'세상을 향한 창'**과 같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다. 현대 회화를 출발시켰다고 평가되는 인상주의자들이 의식적으로 추구한 것도 이러한 사실성이었다. 그들은 모든 대상을 빛이 반사되는 물체로 간주하고 망막에 맺힌 대로 그리는 것을 회화의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빛을 받는 대상이면 무엇이든 주제가 될 수 있었고, 대상의 고유한 색 같은 것은 부정되었다. 햇빛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그려진 모네의 낟가리 연작이 그 예이다.

그러나 세잔의 생각은 달랐다. "모네는 눈뿐이다."라고 평했던 그는 그림의 사실성이란 우연적 인상으로서의 사물의 외관보다는 '그 사물임'을 드러낼 수 있는 본질이나 실재에 더 다가감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세잔이 그린 과일 그릇이나 사과를 보면 대부분의 형태는 실물보다 훨씬 단순하게 그려져 있고, 모네의 그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자연스러운 윤곽선이 둘러져 있으며, 원근법조차도 정확하지 않다. 이는 어느 한순간 망막에 비친 우연한 사과의 모습 대신 사과라는 존재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을 포착하려 했던 세잔의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계승하여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바로 입체주의이다. 입체주의는 대상의 실재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 시점에서 본 대상을 한 화면에 결합하는 방식을 택했다. 비록 스타인의 초상화는 본격적인 입체주의 그림은 아니지만, 세잔에서 입체주의로 이어지는 실재의 재현이라는 관심이 반영된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인 것은 '닮게 될 것'이라는 말의 의미이다. 실제로 세월이 지난 후 피카소의 예언대로 사람들은 결국 스타인의 초상화가 그녀를 닮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를 설명하려면 회화적 재현에 대한 철학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데, 곰브리치와 굿맨의 이론이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순수한 눈'** 같은 것은 없으며,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성이란 없고, 사실적인 그림이란 결국 한 문화나 개인에게 익숙한 재현 체계를 따른 그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지각은 우리가 속한 관습과 문화, 믿음 체계, 배경 지식의 영향을 받아 구성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작가와 작품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믿음은 그 작품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피카소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 그림이 피카소가 그린 스타인의 초상'이라는 우리의 지식이 종국에는 그림과 실물 사이의 닮음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지각을 형성해 냈을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사실성이라는 것이 과연 재현 체계에 따라 상대적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피카소의 수수께끼 같은 답변과 자신감 속에는 회화적 재현의 본성에 대한 이러한 통찰이 깔려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23. 스타인의 초상화와 관련된 피카소의 의도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어느 한순간의 스타인의 외양이 아니라 그녀의 본질을 재현하려 했다.
②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훗날 변하게 될 스타인의 모습을 나타내려 했다.
③ 고전적인 미의 기준에 맞추어 스타인을 이상화된 모습으로 나타내려 했다.
④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스타인의 모습을 가감 없이 정확히 모사하려 했다.
⑤ 정지된 모습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스타인의 모습을 재현하려 했다.

24.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바르게 이해한 것은?

<보 기>

(가) (나) (다)

모네(1891)
<늦여름 아침의 낟가리>

세잔(1899)
<사과와 오렌지>

피카소(1907)
<아비뇽의 아가씨들>

① (가)와 (나)는 모두 뚜렷한 윤곽선이 특징인 그림이군.
② (나)와 (다)는 모두 대상이 빛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군.
③ (가)와 달리 (나)는 원근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림이군.
④ (가)와 달리 (다)는 사물의 고유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림이군.
⑤ (가), (나), (다)는 모두 '세상을 향한 창'이 되고자 하는 목표에서 나온 그림이군.

25. 곰브리치와 굿맨이 인상주의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망막에 맺힌 상은 오히려 '순수한 눈'을 왜곡할 수 있다.
② 객관적인 사실성은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우연의 산물이다.
③ 망막에 맺힌 상을 그대로 그린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성은 얻을 수 없다.
④ 대상의 숨어 있는 실재를 지각하기 위해서는 눈 이외의 감각 기관이 필요하다.
⑤ 인상주의의 재현 체계는 다른 유파의 재현 체계에 비해 사실성을 얻기가 어렵다.

26. ㉠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절한 것은?

① 서양 사람이라도 동양의 수묵화나 사군자화를 감상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② 그림에 재현된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능력은 서로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 간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③ 대상의 그림자까지 묘사한 그림이 그렇지 않은 그림보다 공간감과 깊이를 더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듯이 재현 체계는 발전할 수 있다.
④ 그림에서 대상을 알아보는 능력은 선천적이어서 생후 일정 기간 그림을 보지 않고 자란 아이들도 처음 그림을 대하자마자 자신들이 알고 있는 대상을 그림에서 알아본다.
⑤ 나무를 그린 소묘 속의 불분명한 연필 자국은 나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리의 사전 지식으로 인해 나무로 보이고, 소 떼 그림에 있는 비슷한 연필 자국은 소로 보인다.

27. 문맥상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1점]

① 습득(習得)하게 ② 체득(體得)하게
③ 취득(取得)하게 ④ 터득(攄得)하게
⑤ 획득(獲得)하게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는 지금 어머니와 함께 꼬두메를 찾아 내려가고 있는 참이었다. 허황하기조차 한 그녀의 넋두리를 좇아 이렇듯 추운 한겨울밤을 완행열차에 흔들리며, 떠나온 지 십삼 년이 넘은 고향으로 향하게 되리라고는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미처 상상조차 못 했던 것이다. 이 느닷없는 귀향길은 어찌 보면 어처구니없을 만큼 충동적으로 결행된 셈이었다. 아내의 말마따나 제정신이 아닌 짓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바로 이날 오후였다. 휴일이 아닌데도 그는 담배꽁초만 재떨이에 수북하게 쌓아 가며 종일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었다. 몸이 불편해서 출근하지 않는 줄로만 여겼는지, 아내는 되도록이면 그를 혼자 있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눈치였다. 이날 아침 그는 기어이 사표를 써서 집 앞 우체통에 넣었던 것이다. 몇 푼 안 되는 퇴직금은 고사하고라도 몇 달째 밀린 봉급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다. 무엇보다 자신과 똑같은 처지의 동료들의 누렇게 뜬 얼굴들을 대하기가 소름이 돋도록 두려웠다. 결국 그는 또다시 실업자가 되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번으로 꼭 두 번째였다. 신문사를 나온 후, 오 년 동안의 그 ㉠공백기간에 겪었던 처참함을 그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제 아내는 다시 예전처럼 방 한 칸이 달린 구멍가게 자리를 구하기 위해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변두리를 돌아다닐 수도 없으리라. 그나마 남아 있던 쥐꼬리만 한 돈은 바닥이 난 지

오래였고, 전세금을 줄여 가며 변두리로만 이사를 다니다가 급기야 월세방 처지로 주저앉게 된 지도 벌써 이태째였다. 하지만 그는 이젠 도저히 또 다른 직장을 찾아 나설 용기도 아니, 그래야 할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사라져 버리고 만 듯한 느낌이었다.

놀라우리만큼 자신이 허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이즈음에야 그는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참으로 비겁한 변명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것은 어머니의 몰락이 자신에게 가져다 준 가장 확실한 선물일 수도 있었다. 어머니의 그 넓고 미더운 그늘이 머리 위에서 걷히어져 버리고 난 후, 그는 ㉡햇볕 속으로 나온 음지 식물처럼 삽시간에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었다. 눌눌한 콧물을 후룩거리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는 수없는 방황을 치러 왔지만, 그때마다 그를 단단히 붙잡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준 것은 바로 어머니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던 것이다. 오 년의 실직 기간 동안, 거의 날마다, 그것도 얻어 마신 술에 취해 밤늦게 돌아와 대문 앞에서 허물어지듯 쓰러져 버리곤 하던 그가 그래도 최후의 고집스런 용기만은 요행히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어머니의 그 ㉢변함없는 그늘을 은연중에 믿고 있었음으로 해서이리라. 하지만 이젠 어머니의 그 야윈 손길마저도 아무런 ㉣기적을 베풀 수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절망의 심연으로 까마득히 가라앉아 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중략)

아아. 이 눈 속에서 어머니는 혼자 어디로 가신 것일까. 찬우야이. **꼬두메**로 핑 가자이. 불길한 주문만 같던 어머니의 음성이 귓전에서 맴을 돌았다. 정말, 어머니는 기어코 꼬두메를 찾아가시겠다고 얼토당토않게시리 홀로 길을 나선 것일까. 온몸에 하얗게 눈을 맞으며 어디론가 하염없는 걸음을 옮기고 있을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꼬두메는 이미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 속의 마을이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이젠 더 이상 아무도 그곳을 기억해 주지 않는 이 땅을 떠나, 그 과거의 이름들이 아직 살아 숨 쉬고 있을 또 다른 세계를 찾아 길을 나선 것일까. 그렇다면 그 세상은 오직 어머니 혼자만 아는, 당신만의 소중한 세계일 터였다. 거기엔 어머니가 한시도 잊지 못했던 그리운 사람들과 정겨운 이름들이 예전 그대로 살아 있을 것이었다. 한쪽 눈을 못 보는 아버지와 착한 형, 그리고 어쩌면 어린 시절의 그의 앳된 얼굴도 그 가난한 식구들 곁에서 함께 곤히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아니야. 그러나 그는 세차게 고개를 흔들어 버렸다. 꼬두메는 이미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코 아무도 찾아갈 수 없는 망각의 땅일 뿐이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분명한 사실을 다만 어머니 혼자서만 아직도 모르고 있을 뿐이었다.

찾아야 해. 어머니를 찾아내야만 해.

그는 마침내 흐드러지게 쏟아져 내리는 함박눈을 맞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잣고개를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차츰 눈송이가 굵어져 가고 있었다. 은빛, 세상은 온통 은빛이었다.

- 임철우, 「눈이 오면」 -

28.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②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③ 담담한 태도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④ 대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서술하고 있다.
⑤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29.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임철우의 소설 「눈이 오면」은 고향을 찾아가는 '여로(旅路)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구조는 사건의 전개 과정이나 작중 인물의 성격 창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① '그'가 귀향 여행을 충동적으로 결행한 것으로 설정하여, '그'의 성격이 즉흥적이면서도 낙천적이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② 십삼 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을 찾아가도록 하여, '그'가 지금까지 현실과 타협하면서 잘 적응해 왔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③ 겨울밤 완행열차를 귀향 수단으로 택해 성찰의 시간과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그'가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 반성해 보도록 하였다.
④ 귀향 과정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어머니'를 찾아 나서는 모습을 제시하여, '그'가 사려 깊지 못하고 부주의한 인물이었음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⑤ 귀향하는 날 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그'가 과거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제는 적극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물로 변모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30. **꼬두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꼬두메에는 '그'의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들어 있다.
② 꼬두메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③ 꼬두메가 이 세상에 없음을 '어머니'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④ 꼬두메는 '그'가 가족과 함께 물질적 풍요를 누리던 곳이다.
⑤ 꼬두메는 '어머니'가 찾아가고 싶어 하는 그녀의 소중한 세계이다.

31. 문맥상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실직했던 기간
② ㉡: 세상의 따뜻한 인정
③ ㉢: 한결같은 사랑과 보호
④ ㉣: 삶을 지탱해 주거나 도와줌
⑤ ㉤: 극심한 무력감과 좌절감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광고에서 소비자의 눈길을 확실하게 사로잡을 수 있는 요소는 유명인 모델이다. 일부 유명인들은 여러 상품의 광고에 중복하여 출연하고 있는데, 이는 광고계에서 관행으로 되어 있고, 소비자들도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유명인의 중복 출연은 과연 높은 광고 효과를 보장할 수 있을까? 유명인이 중복 출연하는 광고의 효과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모델이든지 상품의 특성에 적합한 이미지를 갖는 인물이어야 광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카메라, 공기 청정기, 치약과 같은 상품의 경우에는 자체의 성능이나 효능이 중요하므로 대체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모델이 적합하다. 이와 달리 상품이 주는 감성적인 느낌이 중요한 보석, 초콜릿, 여행 등과 같은 상품은 매력성과 친근성을 갖춘 모델이 잘 어울린다. 그런데 유명인이 그들의 이미지에 상관없이 여러 유형의 상품 광고에 출연하면 모델의 이미지와 상품의 특성이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광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유명인의 중복 출연이 소비자가 모델을 상품과 연결시켜 기억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도 광고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명인의 이미지가 여러 상품으로 분산되면 광고 모델과 상품 간의 결합력이 약해질 것이다. 이는 유명인 광고 모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광고 상품에 전이하여 얻을 수 있는 광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유명인의 중복 출연 광고는 광고 메시지에 대한 신뢰를 얻기 힘들다. 유명인 광고 모델이 여러 광고에 중복하여 출연하면, 그 모델이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강하게 각인된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유명인 광고 모델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되어 광고 메시지가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유명인 모델의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명인이 자신과 잘 어울리는 한 상품의 광고에만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할 경우 상품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상품을 기억하기 쉬워지며, 광고 메시지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된다. 유명인의 유명세가 상품에 전이되고 소비자가 유명인이 진실하다고 믿게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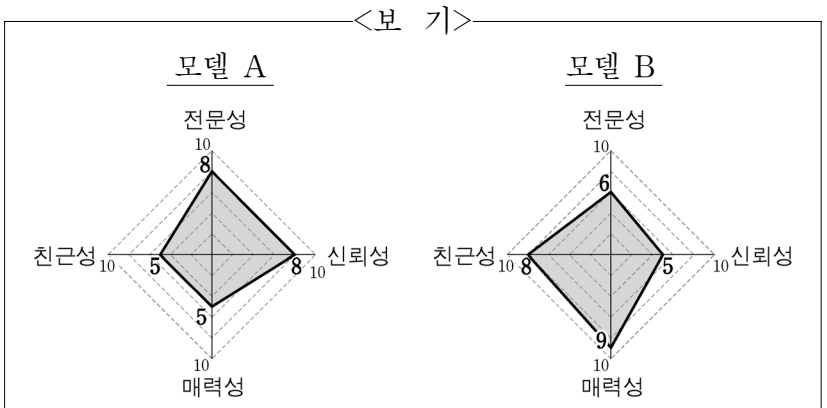
여러 광고에 중복 출연하는 유명인이 많아질수록 외견상으로는 중복 출연이 광고 매출을 증대시켜 광고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모델의 중복 출연으로 광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광고비가 과다 지출되어 결국 광고주와 소비자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 유명인을 비롯한 광고 모델의 적절한 선정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2.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② 유사한 사례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부각하고 있다.
③ 자료를 활용하여 이론을 정립한 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고 있다.
④ 대립되는 이론을 절충하여 새로운 이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⑤ 통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근거를 들어가며 주장을 펼치고 있다.

33. 위 글의 글쓴이의 입장에 따라 <보기>의 유명인 모델이 등장하는 광고의 효과를 예상해 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① 모델 A가 특정 카메라 광고에 계속해서 등장할 때 긍정적인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② 모델 A가 자동차, 보석 광고 등에 중복 등장할 때 기대했던 만큼 광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③ 모델 B가 치약 광고와 여행 광고에 등장할 때 두 광고 모두에서 긍정적인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④ 초콜릿 광고의 경우 모델 A보다 모델 B가 등장할 때 더 큰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공기 청정기 광고의 경우 모델 B보다 모델 A가 등장할 때 더 큰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4. 위 글의 핵심 주장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신문, 잡지, 텔레비전 등 광고를 전달하는 매체가 광고하는 상품의 특성에 적합해야 광고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② 유명인을 등장시킨 광고의 효과가 기대 이하여서 광고 횟수를 지속적으로 늘렸으나 광고 효과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
③ 유명인 광고 모델이 현실에서의 비리나 추문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면 광고하는 상품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있다.
④ 광고를 많이 하는 특정 상품에 대해 유명인 모델이 등장하는 광고와 일반인 모델이 등장하는 광고를 동시에 할 경우 광고의 효과가 커졌다는 사례가 있다.
⑤ 특정 상품과 관련하여 유명인이 등장하는 광고를 자주 하면, 그 유명인이 등장하는 다른 상품들의 광고는 상대적으로 광고 횟수가 적어도 효과는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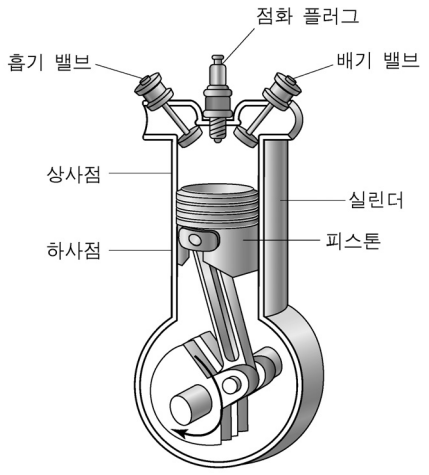
35. 밑줄 친 단어의 문맥적 의미가 ㉠과 가장 가까운 것은? [1점]

① 어제 신문에 그 기사가 나왔다.
② 맑은 날보다 흐린 날에 사진이 잘 나온다.
③ 하루 종일 찾던 지갑이 세탁물 속에서 나왔다.
④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는 바람에 빨래를 못 했다.
⑤ 며칠 전 씨를 뿌린 곳에서 싹이 나오기 시작했다.

[36~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은 연료량 대비 운행 거리의 비율인 연비로 나타내며, 이는 자동차의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이러한 자동차의 연비는 엔진의 동력이 어떤 조건에서 발생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엔진의 동력은 흡기, 압축, 폭발, 배기의 4 행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생산된다. 흡기 행정에서는 흡기 밸브를 열고 피스톤을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이동시킨다. 이때 실린더 내부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져 공기가 유입되는데, 흡입되는 공기에 연료를 분사하여 공기와 함께 연료를 섞어 넣는다. 압축 행정에서는 ㉠실린더를 밀폐시키고 피스톤을 다시 상사점으로 밀어 공기와 연료의 혼합 기체를 압축한다. 폭발 행정에서는 피스톤이 상사점에 이를 즈음에 점화 플러그에 불꽃을 일으켜 압축된 혼합 기체를 연소시킨다. 압축된 혼합 기체가 폭발적으로 연소되면서 실린더 내부 압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외부 대기압과의 압력 차이에 의해 피스톤이 하사점으로 밀리면서 동력이 발생한다. 배기 행정에서는 배기 밸브가 열리고 남아 있는 압력에 의해 연소 가스가 외부로 급격히 빠져나간다. 피스톤이 다시 상사점으로 움직이면 흡기 때와는 반대로 부피가 줄면서 대기압보다 내부 압력이 높아지므로 잔류 가스가 모두 배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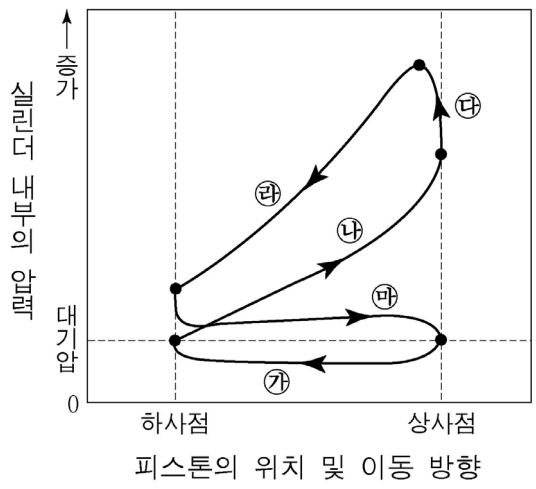
이러한 엔진의 동력 발생 주기에서 흡입되는 공기와 분사되는 연료의 혼합비를 어떻게 유지해 주느냐에 따라 자동차의 연비가 크게 달라진다. 일정 질량의 연료를 완전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의 질량은 일정하다. 한편 실린더 안에서 피스톤의 이동으로 흡입될 수 있는 공기의 부피는 정해져 있으므로, 공기의 밀도가 변하지 않으면 한 주기 동안 완전 연소 가능한 연료량의 최대치는 일정하다. 즉 최대 출력을 얻을 수 있는 공기와 연료의 적정한 혼합비는 이론적으로는 일정하다. 혼합비가 적절하지 않으면 출력이 떨어지면서 유해 가스의 배출량이 늘어나는데, 적정 혼합비보다 혼합 기체에 포함된 연료의 비율이 높아지면 산소가 부족하여 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증가한다. 반대로 연료의 비율이 낮아지면 공기 과잉으로 질소산화물이 늘어나고 배기가스에 산소가 잔류한다.

이론과 달리 실제 환경에서의 적정 혼합비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이는 대기압, 엔진의 회전수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실린더에 흡입되는 공기의 질량이 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의 연비를 향상시키려면 엔진의 운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혼합비를 지속적으로 제어해야 한다.

3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u>않는</u> 것은?

① 4 행정의 동력 발생 주기를 완료하면 피스톤은 실린더를 2 회 왕복한 것이 된다.
② 자동차 엔진은 실린더 내부에서 가스가 외부로 배출되는 단계에서 동력을 얻는다.
③ 엔진의 운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제어하면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
④ 혼합 기체의 흡입과 연소 가스의 배출은 실린더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에 의해 발생한다.
⑤ 실제 환경에서 엔진의 회전수는 혼합 기체의 적정 혼합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이다.

37. 다음 그래프는 엔진이 작동할 때의 실린더 내부 압력과 피스톤의 위치 및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위 글의 ㉠에 해당하는 구간은?



① ㉮ ② ㉯ ③ ㉰ ④ ㉱ ⑤ ㉲

38.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해발 고도가 5,000 m 정도인 고원 지역에서는 대기압과 공기의 밀도가 해수면 인접 지역에 비해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이로 인해 해수면 인접 지역에서 에너지 효율이 최고가 되도록, 한 주기 동안 분사되는 연료량을 고정시킨 자동차를 고원 지역에서 운행하면 <u>여러 가지 현상</u>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자동차 엔진은 흡입 공기의 압력을 감지하여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가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① 탄화수소의 발생량이 증가한다.
② 엔진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
③ 배기가스의 배출 속도가 느려진다.
④ 배기가스에서 잔류 산소가 검출된다.
⑤ 동일 양의 연료에서 얻는 출력이 커진다.

[39~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우희 치다라 안자
것넌 산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鶻)**이 떠 잇거늘 가슴이
금즉하여 풀덕 뛰여 내닷다가 두엄 아래 잣바지거고
모쳐라 날낸 낼싀만정 에헐*질 번 하괘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에헐 : 어혈. 타박상 등으로 피부에 피가 맺힌 것.

(나) 요사이 **고공**들은 생각이 어찌 아주 없어
밥사발 크나 작으나 동옷이 좋고 궂으나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戶首)*를 시샘하는 듯
무슨 일 감겨들어 흘깃할깃 하느냐
너희네 일 아니하고 시절조차 사나워
가뜩이 **나**의 세간 풀어지게 되었는데
엊그제 화강도(火强盜)에 가산(家産)이 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중략)
칠석에 호미 씻고 김을 다 맨 후에
새끼 꼬기 누가 잘 하며 섬은 누가 엮으랴
너희 재주 헤아려 제각기 맡아 하라
가을걷이 한 후에는 집짓기를 아니하랴
집은 내 지으마 ㉠ 움은 네 묻어라
너희 재주를 내 짐작하였노라
너희도 먹을 일을 분별을 하려무나
멍석에 벼를 넌들
좋은 해 구름 끼어 햇볕을 언제 보랴
방아를 못 찧거든 거치나 거친 올벼
옥 같은 ㉡ 백미 될 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너희네 데리고 새 ㉢ 살림 살자 하니
엊그제 왔던 도적 아니 멀리 갔다 하되
너희네 귀 눈 없어 저런 줄 모르건대
화살을 제쳐 두고 **옷 밥**만 다투느냐
너희네 데리고 추운가 굶주리는가
㉣ 죽조반(粥早飯) 아침 저녁 더 많이 먹였거든
은혜란 생각 않고 제 일만 하려 하니
생각 있는 새 일꾼 어느 때 얻어서
집 일을 마치고 시름을 잊겠는가
너희 일 애달파 하면서 ㉤ 새끼 한 사리 다 꼬겠도다.

– 허전, 「고공가(雇工歌)」 –

* 호수 : 고공(머슴)의 우두머리.

(다) 물이 하나의 국가라면, 용은 그 나라의 군주이다. 어족(魚族) 가운데 큰 것으로 고래, 곤어, 바다 장어 같은 것은 그 군주의 내외 여러 신하이고, 그 다음으로 메기, 잉어, 다랑어, 자가사리 종류는 서리나 아전의 무리이다. 그 밖에 크기가 한 자가 못 되는 것은 수국(水國)의 만백성들이다. 그 상하에 서로 차서(次序)가 있고 대소(大小)에 서로 거느림이 있는 것은 또 어찌 사람과 다르겠는가?

이 때문에 용이 그 나라를 경영함에 가물어 물이 마르면 반드시 **비**를 내려 이어주고, 사람들이 물고기 씨를 말릴까 염려하여 겹겹이 물결을 일렁이어 덮어 주니, 그것이 물고기에게는 은혜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물고기에게 자애로운 것은 한 마리 용이고, 물고기를 못살게 하는 것은 수많은 큰 물고기들이다. 고래들은 조류를 따라가며 들이마셔 작은 물고기를 자신의 시서(詩書)로 삼고, 교룡, 악어는 물결을 다투어 삼키고 씹어 먹어 작은 물고기를 거친 땅의 농사로 삼으며, 문절망둑, 쏘가리, 드렁허리, 가물치 족속은 사이를 노리고 틈을 잡아 덮쳐서 작은 물고기를 은과 옥으로 삼는다. 강자는 약자를 삼키고 지위가 높은 것은 아랫것을 사로잡는다. 진실로 그러한 행위를 싫증 내지 않는다면 물고기들은 반드시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슬프다! 작은 물고기가 없다면 용은 뉘와 더불어 군주 노릇을 하며, 저 큰 물고기들이 또한 어찌 으스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용의 도(道)란 그들에게 구구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보다 먼저 그들을 해치는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이다.

아아, 사람들은 물고기에게만 큰 물고기가 있는 줄 알고 사람에게도 큰 물고기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물고기가 사람을 슬퍼하는 것이 사람이 물고기를 슬퍼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을 어찌 알겠는가?

– 이옥, 「어부(魚賦)」 –

39.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① 대상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② 과거 사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드러나 있다.
③ 고사(故事)를 활용하여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④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⑤ 특정 장면에 초점을 맞추어 대상을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40. (나)와 (다)를 비교할 때, 문맥적 의미가 **비**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41. 밑줄 친 대상 간의 관계가 (가)의 '두터비', '파리', '백송골' 간의 관계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닭은 때를 알리고 개는 도적을 살피고
소 말은 큰 구실 맡겨 다 기름 직하거니와
저 매는 꿩 잡아 절로 바치든가 나는 몰라 하노매라.

②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쏘냐
아마도 겉 희고 속 검은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③ 나비야 청산 가자 범나비 너도 가자
가다가 저물거든 꽃에 들어 자고 가자
꽃에서 푸대접하거든 잎에서나 자고 가자.

④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 올까 하였더니
봉황은 아니 오고 오작만 날아든다
동자야 오작 날려라 봉황 오게 하리라.

⑤ 장공에 떴는 솔개 눈 살핌은 무슨 일인가
썩은 쥐를 보고 빙빙 돌고 가지 않는구나
만일에 봉황을 만나면 웃음거리 될까 하노라.

42.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고공가」는 전란으로 인해 황폐해진 나라를 재건하자는 의도에서 지어진 노래로, 국가 정치를 한 집안의 농사일에 비유하여 관료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① '고공'이 반목과 질시를 일삼는 것으로 보아 조정에는 불화가 있었군.
② '나'가 '고공'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료 사회에는 불신이 팽배했군.
③ '나'는 외적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외적의 재침략을 걱정하고 있군.
④ '나'가 집안의 일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아 '나'는 성공적인 국가 재건을 바라는 인물이군.
⑤ '고공'이 '옷 밥'만 탐했다는 것으로 보아 관료들은 본분을 잊어버리고 사욕만을 채우고자 하였군.

43. (다)의 논지를 긍정하는 신하가 군주에게 상소문을 올린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은 삼가 성상께 글을 올리옵니다. 성상의 바른 다스림에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살아갈 수 있었사옵니다. ① 성상께서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항상 성심을 다하고 계시옵니다. 하지만 성상의 뜻과는 달리 ② 조정의 대신들은 백성들을 가볍게 여기고 있사옵니다. 또한 ③ 지방관들은 백성을 사사로이 부리고 있으며, 그 밑에 있는 서리나 아전들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데만 눈이 멀어 있사옵니다. 이에 백성들은 죽어 사라질 위기에 처하였사옵니다. ④ 백성이 있어야 성상께서도 군주가 되시옵고, 벼슬아치들도 살 수 있는 것이옵니다. 하오니 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창고를 열어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일이옵니다.

전하,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글 창제 후 다양한 방식으로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자 생활사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서적의 간행에 영향을 미쳤는데, 서적을 간행할 때에 서적의 내용과 간행 목적에 따라 예상 독자층을 상정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게 되었다.

한글 창제 직후 간행된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은 모두 한글과 한자를 섞어 표기하였다. 하지만 세 문헌은 구체적인 표기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상정한 예상 독자가 달랐기 때문이다.

『용비어천가』는 '海東六龍이 ᄂᆞᄅᆞ샤'에서와 같이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였다. 이것은 한자와 한문을 많이 아는 사람을 주요 독자층으로 상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월인천강지곡』은 '셰世존尊'에서처럼 ㉠ 해당 한자음에 한자를 병행하여 적었고, 『석보상절』은 '世셰尊존'에서처럼 해당 한자에 한자음을 병행하여 적었다.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에는 공통적으로 ㉡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발음되지 않는 한자음을 표기하려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은 한자를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독자층으로 상정하였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누구를 주된 독자층으로 상정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표기 방식이 달랐다. 『월인천강지곡』은 한자를 잘 모르는 독자, 즉 한글 창제를 통해 새로 확보하게 될 독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방식으로 간행된 것이다.

앞의 세 문헌보다 후대에 간행된 『두시언해』와 『백련초해』도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방식에 서로 차이를 보인다. 성종 때 간행된 『두시언해』는 두보의 한시를 한글로 번역한 책인데, '東녀그로 萬里예'에서 보듯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두시언해』가 두보의 시를 한문으로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독자로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련초해』는 원문의 시는 한자로 적고 각 한자에 한글로 음과 훈을 달았으며, 번역문은 순 한글로 적고 있다. 이는 한자를 모르는 아동을 독자로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백련초해』의 번역문은 독자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순 한글로만 적는 표기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4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① 『용비어천가』는 한자음을 한글로 밝혀 적는 방식을 채택했다.
② 『월인천강지곡』은 한글 창제로 인해 확대될 독자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표기 방식을 채택했다.
③ 『석보상절』은 서로 다른 부류의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표기했다.
④ 『두시언해』는 한자와 한문에 익숙한 독자층을 고려했다.
⑤ 『백련초해』의 번역문은 한글로만 표기되었다.

45.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의 원리를 오늘날에 맞게 적용한 것은?

<보 기>

한글과 한자는 음절 단위로 끊어 적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알파벳은 음소 문자라는 점에서는 한글과 같지만 문자를 운용할 때에는 한글과 달리 음절 단위로 끊어 적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한글과 알파벳을 함께 사용할 때는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① London에 살아요.
② 런던(London)에 살아요.
③ London(런던)에 살아요.
④ Lon런don던에 살아요.
⑤ 런Lon던don에 살아요.

46. ㉡의 사례로 미루어 보아, <보기>의 주장을 도입한다고 할 때 예상되는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국어에는 [f]에 해당되는 음이 없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영어의 'file'과 같은 단어를 '파일'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ㅍ'의 발음이 [f]와 다르다는 이유로 부가적인 기호 'ㅇ'을 사용하여 '퐁'을 만들어 써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① 외국어의 다양한 문자를 적기 위해 많은 부가적 기호가 개발된다.
② 표기하려는 음이 국어에 없는 음이므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③ 외국어 발음이 부자연스럽게 통일되므로 외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외국어의 정확한 음을 한글로 표기할 수 있으므로 국어의 문자 생활이 편리해진다.
⑤ 영어의 file을 '퐈일'로 적게 되므로 국어에 새로운 음이 만들어져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기 쉬워진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태수 설인수는 원수(元帥)를 가까이에서 모셨으되, 원수는 설인수인 줄 아나 인수는 경작이 원수가 되었음을 생각지 못하더라. 원수가 아는 체하고자 하되, 군영(軍營)이 요란하여 사사로운 정을 펴지 못하였더니, 이제 번왕 남곽을 평정하고 군영이 고요한데 인수 홀로 모셨더라. 원수가 저의 물러가지 않았음을 보고 시동을 불러 당상으로 청한대, 태수 사양하여 오르지 않거늘 원수가 친히 이끌고 가로되,

"인수 형이 능히 경모를 모르오?"

"소관(小官)이 정신이 밝지 못하고, 일찍 면식이 없으니 알지 못하겠사옵니다."

원수가 잠소(潛笑) 왈,

"형이 과연 눈이 무디다 하리로다. 옛날 금주에서 소 먹이던 목동이었다가 양 승상의 둘째 사위가 된 이경작을 모르오?"

태수가 생각 밖이라. 깨닫지 못하여 가로되,

"그 사람은 소관의 동서러니, 금주를 떠난 지 벌써 십일 년이옵니다."

"십일 년 못 보던 경작이 곧 나이니 형은 모름지기 의아치 마오."

설 태수가 어지러운 듯, 취한 듯하여 오래 말을 못 하더니 이에 자세히 보니 완연한 경작이라. 놀라고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지위를 잊고 손을 잡아 급히 이르되,

"경작 형! 꿈이오? 생시오?"

원수가 웃으며 왈,

"형은 놀라지 마오."

하고 인하여 서로 잔을 들어 유쾌히 술을 마시며 정을 펼새, 태수가 매양 원수의 대덕과 넓은 도량, 기이한 풍도를 우러렀더니 이날 자리를 나란히 하여 잔을 날리며 별회를 베푸니, 마음에 세상일을 가히 헤아리기 어려움을 탄하더라.

원수가 문왈,

"외방에 있은 지 벌써 십일 년이라. 처형은 평안하시오?"

설 태수가 답소(答笑) 왈,

[A] "나는 비록 약한 남자이나 조강지처를 무단히 버리지 아니하니 몸이 편하여 자녀를 갖추어 두었거니와, 형은 약한 부인을 무단히 버리고 십일 년에 이르도록 한 번 편지를 부치는 일이 없었소. 이제 몸이 으뜸 벼슬로 부귀영광이 비길 곳이 없고, 어진 덕과 넓은 덕을 추앙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되, 오직 빈 방의 약한 부인을 생각하지 아니하니 박덕함이 심하여 장차 약한 부인이 몸을 보존치 못하게 되었으니 가장 어둡고 무심한 장부라. 나는 비록 벼슬이 낮아 형을 모시고는 있으나 처자를 편히 거느리니 가히 형보다 낫다고 이르리로다."

하고 대소한대, 원수가 또한 웃고 왈,

"형이 어찌 괴이한 말로써 나를 조롱하오? 가장 가소롭도다. 그러하나 금주의 처가는 평안하시오?"

태수 왈,

"집안은 평안하나 형의 부인이 병이 위중하여 속수무책 조석으로 목숨을 빈다 하니 형이 비록 몸이 영귀하나 무엇이 즐거우리오?"

원수가 듣고 놀라 얼굴을 붉히며 왈,

"과연 형의 말이 옳소?"

"비록 농담이라도 어이 큰 말에 허언을 하리오?"

"목숨의 길고 짧음과 부귀빈천은 하늘에 달렸으니 인력으로 어찌 하리오?"

"형이 곧 경사(京師)*로 가리니, 길이 금주로 지날 것이니 들러 감이 어떠하오?"

"부모 묘소가 게 있으니 들르지 아니리오?"

"어느 때에 경사로 향할 것이오?"

"백성이 어지러웠으니 서너 달 더 머물러 위로하고 가려 하오."

"내 관아가 비록 작으나 수일 후 형을 전송하리니 벼슬이 높다고 사양하지 마오."
원수가 소왈,
"본디 음식을 즐기는 사람이라. 주는 것을 사양할 리 있으리오? 먹는 양을 알아서 큼직이 준비하오. 내 당당히 가겠소."
태수가 소왈,
"벼슬이 높으니 이제 그 숱하게 자던 잠과 둔하게 많이 먹던 양을 줄이는 것이 좋을까 하오."
원수가 대소 왈,
"급제한 후는 더 많이 먹히더이다."
태수가 소왈,
"내가 양식이 부족하여 풍성하지 못하니 형의 양에 차게 하려면 필연 죄를 면치 못하리니 올 적에 말총으로 창자를 졸라매고 오오."
"늘릴 수 있을 만큼 늘리고 가겠소."
"그럴진대 아예 오지 말라 할 것이오."
"국법이 본래 나 같은 사람을 각 도에서 영접하고 잔치하고 공경하고 관대하라 하였으니 적게 못할 것이오."
두 사람이 대소하고 설 태수 돌아와 부인 난주를 대하여 이 원수의 전후 일을 일일이 전하고 기특히 여김을 마지않으며, 돌아가신 장인의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남에 못내 감복하더라.

- 작자 미상, 「낙성비룡(洛城飛龍)」 -

* 경사 : 나라의 수도.

47. 위 글의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로 적절한 것은?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해 사건의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② 독백을 통해 인물의 내면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③ 상징적 소재를 통해 인물 간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④ 심리 묘사를 통해 인물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⑤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48. <보기>의 ㉠~㉣ 중,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낙성비룡」은 조선 왕실에서 향유되었던 낙선재본 소설이다. 이 작품은 영웅소설인 「소대성전」과 내용이 유사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두 작품의 주인공은 모두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 신이한 태몽을 가지고 탄생한다.
○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고생한다.
○ 인물됨을 알아보는 장인 될 사람을 만난다. ····· ㉠
○ 한때 잠을 많이 자는 모습을 보인다. ····· ㉡
○ 장모의 구박으로 처가를 나온다. ····· ㉢
○ 수련을 거쳐 전쟁에서 공을 세운다. ····· ㉣
○ 아내와 해후하여 행복하게 산다.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49.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처자식을 중시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② 어질고 넓은 상대방의 인품을 칭송하고 있다.
③ 처제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④ 손윗사람으로서 상대방의 잘못된 처신을 지적하고 있다.
⑤ 벼슬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당당히 말하고 있다.

50. 위 글에 드러난 상황을 한자 성어를 이용하여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모가 11년 만에 돌아온 것은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고 할 수 있어.
② 경모와 설 태수가 다시 만난 것은 오월동주(吳越同舟)라고 할 수 있어.
③ 경모가 설 태수에게 국법을 운운한 것은 정말 적반하장(賊反荷杖)이야.
④ 설 태수가 경모를 보고 놀란 것은 경모가 환골탈태(換骨奪胎)했기 때문이야.
⑤ 설 태수와 경모가 서로 과거의 일을 이야기한 것은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대표적인 예야.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